우수 학술저자에게 듣는 '나의 불교학'

한국불교학회, 19일 동계워크숍 개최

우수 학술서적 저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내용을 듣고 대중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12월 19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을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힌두교와 불교〉를,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저서 〈불교를 철학하다〉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사회는 한성자 조선왕조실록 영문 번역위원이 맡는다.

김호성 교수는 인도와 대승, 일본불교에 대한 다수의 학술논문, 〈대승경전과 선〉,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 등 다양한 저서를 출판하며 학문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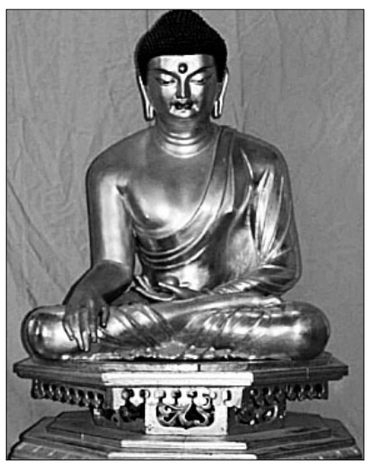
이진경 교수는 〈철학자와 굴뚝청소부〉, 〈맑스주의와 근대성〉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작가이기도 하다.

〈불교를 철학하다〉는 11월 3주째 종교 관련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일반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청량사 건칠약사여래 가치 조명

14일 학술대회 개최



최근 보물로 지정되며 한국 최고(催告) 건칠불로 인정받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사진〉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봉화 청량사(회주 지현)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용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팀장이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조사경위'를, 정은우 동아대 교수가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재검토'를,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다라니와 전적자료'를,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수가 '청량사 건칠불의 보존과학적 연구'를, 김이순 홍익대 교수가 '근대기 건칠조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에는 임남수(영남대),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손영문(문화재청), 이화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높이 90㎝, 어깨 너비 54㎝, 무릎 너비 72㎝ 크기이며, 1560년과 1715년에 중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신성민 기자

완주 송광사 역사 학술적 고찰

동양미술사학회, 16일 국립중앙박물관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소됐다가 벽암 각성 문도 스님들에 의해 중창됐던 완주 송광사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동양미술사학회(회장 최성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완주 송광사의 창건과 조선후기 불교계의 동향'를, 김용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조선중기 벽암각성의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의'를, 한지만 명지대 교수가 '조선후기 선종사원 완주 송광사 가람 구성의 의미'를, 송은석 동국대 교수가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제존상과 무염파(無染派) 조각승'을, 엄기표 단국대 교수가 '완주 송광사 석조미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손성필 한구고전번역연구원 연구원, 이종수 순천대 교수, 한동수 한양대 교수, 손영문 문화재청 전문위원, 정성권 동국대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20년 後 한국불교 초고령화… 대책 시급"

이범수 교수 〈불교평론〉 '고령사회와 불교' 특집서 주장

20년 뒤 한국불교는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젊은 세대의 유입이 없을 경우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에 기고한 논문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초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베이비붐 이후 신노인층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도 차안으로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통계청 인구센서스와 조계종 연령별 승려 통계 등을 분석해 10년, 20년 뒤의 승가와 재가의 연령분포 값을 도출했다.

조계종의 경우 2015년 13,078명이 종단 소속 승려로 등록됐고, 65세 이상 수행자가 2,140명으로 고령화율은 16.36%이다.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이를 토대로 이 교수는 출가자 증가폭, 평균 사망률, 10년 뒤 고령인구 편입자 등을 계산해 10년 뒤 조계종의 고령화율이 36.1%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같은 방법으로 20년 뒤를 계산한 결과 고령화율은 54.8%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한국불교는 2015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약 20년 뒤에는 승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가 신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불교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22.8%인 1천72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통계청은 2025년 인구를 5천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불교인구는 1천184만 명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고령화율을 환산하면 그 수치는 36.3%에 이른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하는 2025년 고령화율 29.4%보다 7%가 많다.

2035년 출가자 54% 고령
10년 뒤 재가고령율 36%
젊은 층 유입없으면 '위기'
신노인층 활용 차안 제시
'고령화 특별법' 제정 요구

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25년까지 젊은 재가자가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5년에는 고령화율이 54%에 달하는 승가와 비슷해질 수 있다"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비율보다 높아지는 재가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종책 등은 종단 차원에서 연구되거나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젊은 층들이 불교인구 편입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장차 노인층에 편입될 신노년층 불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을 종단 지도부에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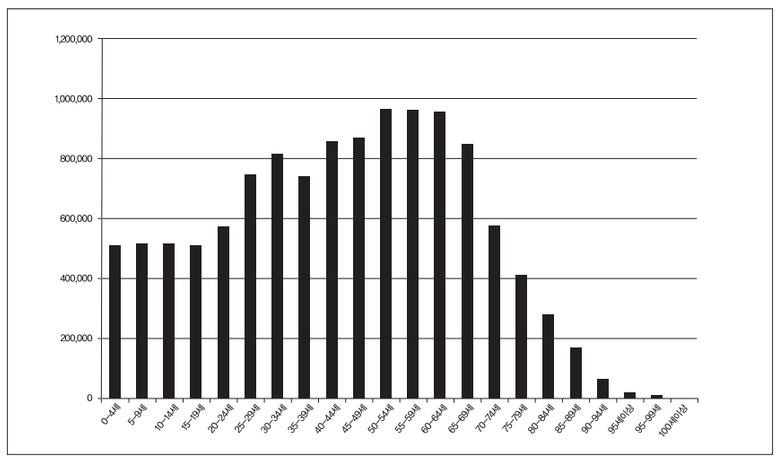
신노년층 포교를 위해서 이 교수는 신노년층을 위한 복지 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수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범불교계 차원의 '고령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신노년층 활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다방면의 준비가 착오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 고령화 대책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가 복지는 현 시대에서 승가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었으며, 이를 받쳐주는 복지법이 제정돼 종단 내 많은 영향을 주며 꾸준히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령화 특별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5년 예상 불교인구 수와 연령별 비율 예상치



"연등회 창작곡, 수명 연장이 급선무"

양영진 학예사 연등회 포럼서 최근 43곡 창작… 활용도 낮아

"2010년 이후 제작된 연등회 창작곡 중 대중율동곡으로 활용되지 못한 악곡이 20곡에 달한다. 이전 악곡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창작곡의 활용도는 행사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기에 '악곡 부르기 대회' 등 사업을 전개해 곡의 수명을 늘여야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연등회 음악의 수명 연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영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는 12월 5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열린 '연등회 음악과 연희율동 포럼'에서 현재 연등회 음악 저변확대의 한계를 '부족한 활용도'로 꼽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등회 음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양 연구사는 대중율동곡의 변천시기를 △가요와 민요 · 창작곡의 혼재기(1997~2003) △내실 있는 창작이 이뤄진 안정기(2004~2009) △다작(多作)의 지속기(2010~2015)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지속기에 많은 곡이 만들어졌음에도 대중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서 대중율동곡에 맞춰 단체율동을 선보이는 연희단.

양 연구사는 "지속기에 제작된 곡은 최대 7~9차례 걸쳐 재사용된 이전 악곡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3곡이라는 많은 창작이 이뤄졌지만 이에 반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대중율동곡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중율동곡의 발전방안을 국악학적 관점서 찾았다. 국립국악원이 198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창작국악동요제'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양 연구사는 "그간의 창작국악동요제 수상작이 300여 곡에 달하고, 총 25장의 앨범과 악보집을 발간했다.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국악동요를 발굴 · 보급하기 위한 목적은 연등회 대중율동곡 창작 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불교는 전통음악인 염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선율을 사용한 창작에 작곡의 방점을 둔다면 전통성을 훌륭히 내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창작국악동요제 수상작은 다방면에서 불린다. 창작 주체가 대부분 일선 교사들이고, 이 중 11곡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렸다. 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사업으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연등회 '오늘은 좋은 날' '축제' '길 떠나자' 등의 악곡은 수차례 대중율동에 사용된 만큼 기존 창작곡 주제 선율을 활용한 공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면 이음사운드 대표는 "연등회의 전통성과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전통적인 리듬구조와 음색을 어떻게 현대적인 곡에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작곡자가 지닌 장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작곡자들이 고르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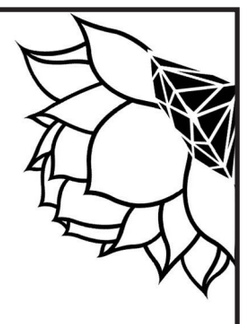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